

大學入試 有感

鄭 光
(德成女大 國語國文學科)

우리나라처럼 大學이 社會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일 년내내 新聞의 政治面이나 社會面, 文化面에서 대학과 관계 있는 記事가 끊일 때가 없고 또 일주일에 한두 번은 대학가의 일이 머리기사를 장식하는 형편이다. 어떤 지방의 경찰지서장이 살인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다가 진범이 잡혀 무죄 석방되었다는 해괴한 사건은 新聞 社會面의 한구석에 조그맣게 실렸지만 대학가의 어느 敎授는 학생들의 리포트 점점 방법까지 대서특필되고 있다.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보면 대학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큰가를 알 수 있게 된다. 웬만한 지하철의 역명은 근처에 있는 대학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구청이라든가 공공기관이 바로 정류장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유명 대학으로 가는 버스가 그곳을 지난다는 연고만으로 그 대학의 이름으로 정류장 이름을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돈암동, 삼선교 같은 서울 시민의 귀에 익숙한 지명이 지하철역에서는 대학의 이름으로 바뀌어 불린다는 것이 그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왜 이땅에는 대학이 이렇게 커다란 비중을 갖게 되었는가? 인구 비례를 따져 보아도 과연 얼마만큼의 국민이 대학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가? 전체 국민의 삼분의 일 정도가 생

업으로 삼고 있는 농업과 어업의 문제는 어찌하여 대학보다 메스컴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가? 소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대학가의 대자보는 그렇게 신속하게 메스컴을 타면서 왜 우리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세금 문제, 공해 문제, 산업 문제, 수출입 문제, 자원 문제 등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은 외국의 메스컴과 비교해 볼 때 더욱 불가사의하고 필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물론 이런 생각은 필자 자신이 메스컴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그 방면에 문외한이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뉴스밸류를 가늠할 능력이 없는 탓도 있을 것이다. 또 필자가 대학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잡지, TV에서 대학과 관계 있는 기사만이 눈에 잘 띄게 된 연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大學이 우리 社會에서 차지하고 있는 政治的 影響력을 지나치게 過小 評價하고 있는 데 더 큰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멀리는 조선 시대에 專制君主의 잘못에 항의를 서슴지 않았던 成均館 儒生들로부터 日帝治下의 독립운동에 나섰던 학생들, 그리고 해방 후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요한 몫을 해왔던 대학생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오늘날 우리의 정치 사회에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투정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대학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입학 시험 때가 되면 그 절정에 달하는 것 같다. 大學入學 學力考查가 시작될 때를 전후해서, 그리고 그 계절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大學 入學에 대한 記事는 연일 메스컴의 머리 부분을 차지하고 前期大學의 입학원서 마감 때쯤 되면 그 狂的인 熱氣는 우리의 모든 사회 현상을 압도하고 만다. 그리하여 대학 입학과는 관계 없는 사람들까지 입학 시험의 열병에 감염되어 현행 입시제도를 통박하고 입학 사정에 합격하거나 불합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도 모두 같이 흥분하고 연성을 높이게 된다. 2월말쯤 이러한 대학 입학 시험제도가 아주 나쁜 제도이고 모순이 많은 제도라는 메스컴의 결론이 나오자 그 해의 대학입시는 막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매년 여론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입시제도에 대한 묘수가 없이 그때 그때 대응적인 수정만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또 그 수정은 또 다른 모순을 낳게 되면서 또 다른 수정을 가져온다.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은 필자의 좁은 소견으로는 대학 입시제도가 그 근본 목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된다.

무엇이 가장 훌륭한 대학 입학 시험제도인가 하는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먼저 지적할 것은 대학 입시는 무엇을 위한 시험인가 하는 점이다. 입학시험도 시험이므로 교육평가의 범주에 속할 것이라 생각한다.

敎育評價라던 우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인가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대학 입학시험은 고등학교 과정의 학업 성적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대학에서 修學할 수 있는 能力을 평가하는 것이다. 즉 과거에 공부를 잘한 학생이나 지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장차 대학에서 공부를 잘할 학생을 뽑는 것이다. 대학 입학시험이란 이런 본래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입시제도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려서 만들어졌고 그 결과 오늘의 대학 입학

시험은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시행되는 시험인지 분명하지 않게 되었다.

어떤 이는 대학 입시제도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고등학교 교육에 대학 입학시험이 끼치는 영향은 막중한 것이어서 그런 사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을 위해서 대학 입시제도를 운용한다는 것은 본래 목적보다 입시제도가 갖는 부수적 영향을 우선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대학 자체에서 실시한 입학시험이 많은 부작용을 낳고 그것이 중요한 사회 문제화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를 관리한다는 발상도 앞에서 말한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즉, 해방 후 한동안 대학 자체에서 입학시험을 실시하였을 때는 학문을 연마할 수 있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욕망이 지나치게 커서 교과서 이외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다. 고등학교 정규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문제가 출제되자 과외수업이 성행하게 되었는데 이 과외수업은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었고 급기야 법으로 이것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과외수업을 법으로 금지한 것이 결코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과외수업의 열기가 일다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는지 알 수 있게 한다.

대학 자체에서 실시한 입학시험에서 교과 교과서 이외에서 출제한 것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가진 대학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대학 입시의 본래 목적보다는 시험 시행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과도하게 의식하여 오늘과 같은 목적이 불분명한 시험제도를 가져온 것이다. 만일 대학 입시를 그 본래 목적에만 국한시킨다면 교과서 이외에서 출제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고 몰아부칠 수는 없을 것이고 체점의 공정성 때문에 사자선다의 궁색한 방법이나 컴퓨터에 의존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현대와 같이 복잡한 사회구조에서

입학시험의 근본 목적 이외에 다른 부수적 요인들을 자꾸 가미하게 되면 점점 복잡해져서 올바른 목표의 설정이나 확고한 제도의 확립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날 실시되고 있는 大學入學 學力考查 제도는 그런 의미에서 입학시험의 본래 목적이 뒷전으로 밀리고 안전주의, 편의주의가 앞선 제도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즉 일반 사회나 고교 교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학교에서 가르친 부분만이 출제되어야 하고, 대학에 대한 公信力이 실추되어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이유에 의하여 마련된 현재의 대학입학 학력고사는 대학 입시의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되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학력고사는 고등학교 과정의 교과서에서 사지선다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출제되었다. 그리하여 삼백이 넘는 출제 요원과 칠십 만이 넘는 응시자가 사지선다의 객관식 문제를 출제하고 컴퓨터 처리를 위한 답안지 작성에 진땀을 흘려야 한다. 필자가 '86학년도 대학입학 학력고사 감독 교수로 파견되어 느낀 감정은 이 고사 방법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분노에까지 이르렀다. 과연 이 많은 수험생들의 3년간 고등학교 교육(실제로는 12년간의 학교교육)을 결산하고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이런 수가 있단 말인가? 그 많은 수험생들이 손바닥보다 더 작은 컴퓨터 용지에 답안을 기록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계문명에 예속되어 오로지 기계에 의존하여 책임을 면하려는 인간의 무력함과 편의주의를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과연 이러한 평가 방법이 대학 입시의 본래 목적에 합당한 것이며 수험생의 진정한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이러한 학력고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금년부터는 논술고사가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되었다. 하나의 제도를 새롭게 만들 때에는 적어도 몇 차례의 조심스런 실험을 거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거의 모든 대학이 실시한 논술고사는 예상했던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논술고사의 목적은 저 문교부 모범안에 명시된 대로 고등 정신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고등 정신능력이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지적되어 있지 않았지만 논술고사는 大學入學 學力考查의 문제점, 다시 말하면 객관식 출제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대학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들이 교육할 학생을 대학 스스로가 선발한다는 의지가 강하게 표출된 제도라 이해될 수 있다. 대학에서 학문을 연마하는 데 필요한 능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고등 정신능력이란 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즉, 어떤 사물을 분석하여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찾아내는 분석능력과 그 분석된 요소들이 상호 어떻게 연관을 맺고 전체를 구성하는가를 알아내는 종합능력(구조 파악능력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다)과 그러한 과정에서 얻어질 수 있는 비평력, 그리고 비평이 단순한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보다 나은 개선책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창의력, 끝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고 좋고 나쁜 것을 가려낼 수 있는 판단력을 말한다. 물론 사람에 따라 분석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비평력이 보다 우월한 정신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어떤 대학에서는 개개인의 창의력을 가장 중요시하여 그것을 평가하는 데 적절한 논술고사 제목을 찾기에 부심하고 일체의 자료 제시를 배척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소견으로는 위에서 언급된 모든 고등 정신능력을 골고루 갖춘 사람이 대학에서 고도의 학문을 연마하는 데 보다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또 단지 암기하는 데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뛰어난 기억력도 결코 고등 정신능력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논술고사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제도는 위와 같은 능력을 고르게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입시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임을 앞에서 언급하였거니와 시험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부작용이나 그로 인하여 야기될지도 모르는 여론이 두려워 교과서 중심이니 객관식이니 컴퓨터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학이 대학다우려면 사회의 여론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하고 어떤 부작용이 있더라도 입학시험 본래의 목적에 맞는 입시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대학이 감수하여야 한다.

끝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사회와 고등학교의 인식에 대하여 한마디 덧붙이고 싶다. 대학은 고도의 학문을 연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고 그러한 욕망이 스스로 우러난 학생들이 오는 곳이다. 학부모의 욕망이나 사회의 여건에 의해서 대학교육의 필요성이 강제된 학생들은 입학이 되더라도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본인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대단한 낭비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졸업장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려는 학생이 아니라 대학에서 연마한 지식을 가지고 사회에 나아가려는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고등학생이 이러한 욕망과 능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고등학교는 대학 입학의 예비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학 입학을 위한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의 목표가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며 오늘날 모든 고등학생에게 무차별하게 가해지는 가혹한 대학 입시 준비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중지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교사 중에서는 공개석상에서 내년도 대학 입시의 경향을 되도록 빨리 알려 주어서 그에 대비하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나름대로 교육목표가 있고 교과과정이 있으며 대학은 그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대학교

육에 적절한 능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코 입시 훈련이 잘 된 학생을 입학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대학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심이 고교 교사들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입학시험과 관련 없는 교육을 실시하기 어렵게 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잘못된 현실과 끊임없이 타협하여 간다면 교육자의 사명은 어디에서 찾을 것이며 이 나라 교육은 어디로 가겠는가?

문제의 핵심은 물론 대학에 있다. 대학 입시의 본래 목적에 맞는 입시제도의 연구와 실시에 대하여 대학은 그동안 지나치게 미온적이었고 무능력했었다. 입학시험에서 일어나는 부작용과 그에 대한 여론의 공세에 대학은 너무나 무기력했던 것도 사실이다. 대학 입시의 자율이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논술교사의 시행에서도 진정으로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스스로 선발하려는 의지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몇몇 대학에서 궁벽하게 출제된 논술교사의 제목이 이미 시중에 널리 판매된 예상문제집의 그것과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유사했었다는 사실은 시험을 위한 훈련을 별도로 받지 않고 지원자의 잠재된 학업 능력을 평가하려는 논술교사 본래의 취지와 너무나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상 대학 입학시험에 대하여 느낀 바를 적어 보았다. 모두가 극히 상식적이고 시중의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사실을 재삼 중언부언한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 입시제도가 그만큼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 입시제도는 대학 입시의 본래 목적에 맞추어 마련되어야 하며 입시에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감안하고 지나치게 확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대학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더불어 비정상적인 여론에 구애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